건설 Analyst 신대현 shin8d @kiwoom.com

현대건설(000720)

대형원전을 넘어 SMR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며 상승한 주가

◎ 대형건설사 주가 상승과 미국 원전 주식의 상승

》 1월 12일 건설사 주가 상승률: **현대건설+20.18%, DL이앤씨 +3.65%**, 삼성E&A +2.03%, GS건설 +1.93%, 대우건설 +1.59%. HDC현대산업개발 +0.48% 순으로 상승

》'26년 1월 9일 메타는 비스트라, 오클로, 테라파워 등 에너지 기업 3곳과 '35년까지 6.6GW 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, SMR 업체들의 자금 문제와 성장 가시성에 대한 우려 해소로 관련 주식들이 상승

- **OKLO +7.9%, SMR +4.3%, Mirion Technologies +7.0%**, Cameco +1.7%. Centrus Energy +7.0%, GE Vernova -0.9%, BWXT +4.3%, Fluor +2.0% 등
- 이처럼 국내에서도 SMR과 관련된 현대건설, DL이앤씨가 더 큰 상승을 보임

◎ 현대건설 SMR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며 상승

》 현대건설은 현재 Holtec과 MOU를 통해 SMR 사업 진출할 계획

》 작년 12월 미국 DOE는 Holtec Palisade SMR 사업에 $400mn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는 만큼, 상반기 중 Palisade 원전 부지에서 300MW SMR 2기 신설 수주가 예상됨

》 **또한, 작년 12월 말 LWA(Limited Work Authoization) 신청서를 NRC에 제출한바 있어 수주 이후 EW(Early Work)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기대**

- 현대건설에 대해서 미국 대형원전 외에도 SM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
- 특히, 다른 원전관련 주식들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과 SMR 수주 가시화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

◎ SMR 기대감 부각은 긍정적, '26년 실적 가시성 필요한 시점

》 **미국 원전 시장내에서 대형원전 외에도 SMR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음**

- 1/2 듀크에너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 인허가 착수
- 1/8 미국 DOE는 Oklo와 Terrestrial Energy 두 업체와 새로운 OTA(Operating Technology Agreement) 체결. 자체적인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한 프로젝트 기간 단축 기대

》 '26년 실적 가시성은 확인할 필요

- 향후 다가오는 4분기 실적발표 때 '26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
- 시장의 실적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월 12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